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창립 31주년 기념식 개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 한문희)이 창립 31주년을 맞이해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 기술 경쟁 시대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예기연은 지난 9월 5일, 창립 31주년을 맞아 한옥 산업 기술연구회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관 1층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한문희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능강화 노력을 하겠다”며 “연구역량을 집약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성과창출형 구조로 변화를 꾀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또 “이를 위해 핵심전략기술 연구분야 중심의 R&D 체제를 구축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연구역량을 배가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관이나 연구자들과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가 아젠다인 저탄소녹색성장 기술 R&D 허브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피력했다.

**한국하니웰
쿠웨이트에 통합 공정제어 시스템 수출**

한국하니웰(대표 박성호)은 최근 SK건설이 수주한 쿠

웨이트 오일·가스 공장에 통합 공정시스템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니웰은 이번 계약체결로 주요 공정 자동화 시스템뿐만 아니라 공장의 안전과 운영자 트레이닝에 관련된 시스템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 있던 하부시스템들을 하니웰의 기술로 통합 운용하게 된다.

SK건설은 하니웰을 공정 제어 및 자동화 단독 사업자로 선정, 플랜트 하부시스템통합에 요구되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LS산전
'최고기업 대상'**

LS산전은 지난 9월 25일 한국경영인협회가 주최하는 '제7회 대한민국 최고기업 대상' 시상식에서 '업종별 최고 기업대상'을 수상했다.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상으로 이번에 7회째를 맞았다.

한국경영인협회는 이번 최고기업 선정을 위해 한국투자증권리서치본부의 협조를 받아 거래소 상장기업 및 코스닥 등록 기업 172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기업 규모,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주주중심경영 등 5개 부문에 걸쳐 정밀한 심사를 진행했다.

LS산전은 전기·자동화 분야에서 시장점유율 35~7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 1조 3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오는 2015년 매출 4조5000억원, 영업이익 70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LS산전 관계자는 “장항공장 노조의 임단협 위임 등 안정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전자태그(RFID), 전력용반도체 등 신사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점이 선정 배경”이라고 말했다.

**SK건설 컨소시엄,
호남고속철도 첫 구간 사업 수주**

SK건설 컨소시엄이 호남고속철도 첫 공사구간의 사업자로 사실상 선정됐다.



호남고속철도의 첫 구간으로 발주된 제1-1공구는 국가 계약법상 처음으로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이 적용된 턴키 공사로 2989억9700만원을 제시한 SK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됐다고 최근 SK건설 측은 밝혔다.

호남고속철도는 경부고속철도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양대 철도기간망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오송에서 목포까지 총 231km에 걸쳐 구축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이번 제1-1공구는 총 연장 7,904m의 공사구간 중 교량 구간만 5,284m에 달하는 초대형 토목공사로, 경부고속철도와의 분기점인 충북 청원군 가외면 오송리에서 강내면 저산리까지를 연결하게 된다.

이번 사업자 선정은 지난 7월 30일 입찰, 8월 28일 설계심의회, 9월 5일 가격개찰 등의 순으로 일정이 진행됐다.

설계심의회에서는 SK컨소시엄, 두산컨소시엄, 삼성컨소시엄, 현대컨소시엄, 한진컨소시엄 등 5개 컨소시엄이 모두 통과한 가운데 SK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SK건설 관계자는 “앞으로 8~11개월 정도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며, 48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3년 준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SK건설 컨소시엄은 SK건설(51%), 대우건설(49%)로 구성돼 있다.

삼성에버랜드

1400억 들여 18.4MW급 상업운전 가동

삼성에버랜드(대표 박노빈)가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옥계리 일대 58만㎡ 부지에 순간발전용량 18.4MW의 태양광발전소를 건립, 지난 9월 29일 가동에 들어갔다.

앞으로 약 2개월간의 안정화 단계를 거쳐 11월말 공식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삼성에버랜드에 따르면 약 14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이번 김천 태양광발전소는 연간 2만6000MW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으로, 이는 김천시 전체가구의 15%에 해당하는 8000여 가구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뿐만 아니라 연간 6천TOE의 에너지를 절감함으로써, 매년 4만배럴의 석유수입 대체 효과를 통해 전체 사업기간(15년) 동안 총 60만 배럴의 석유수입을 줄이는 한편 연간 1만70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켜 환경오염 최소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은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주)포스콘이 일부 지분을 참여하면서 향후 공제회나 민간의 투자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노빈 삼성에버랜드 사장은 “세계적으로 고유가 기조의 장기화 및 환경규제 강화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에너지사업 확대를 통해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미래 에너지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